

대낮의 몽상가를 평단으로 이끈 책

만화평론가 박석환씨가 뽑은 손상익의 《한국만화통사(전2권)》

어린 시절, 새마을회관 옆집에 살았던 건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 국정홍보용으로 배달되던 이두호의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생활인'의 삶을 다룬 다분히 선동적인 만화였지만, 책이 귀한 시절 그것은 상상력의 보물창고였다. 말풍선 안의 글들을 그림처럼 구경하며 한글을 뺀고 난생 처음 잉크 묻은 손에 돈을 쥐어준 것도 만화였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만화다'고 말하는 만화평론가 박석환씨(30). 그가 입심 좋게 풀어놓는 만화에 얽힌 추억담이다. 독고탁, 까치와 함께 성장한 1970년 대생 젊은 만화평론가.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만화평론가 1호로 꼽히는 손상익의 《한국만화통사(전2권)》(시공사)다. 이 책은 만화사에 대한 개요를 시작으로 초기형태의 만화그림,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북한만화까지 우리 만화사를 폭넓게 아우른 제목 그대로 '한국만화통사'다.

"만화평론가라는 동일한 직함을 지닌 저에게 이 책은 단어암기장 같은 것이었죠. 만화사를 관통하는 사건과 만나면서 생경한 개념어들을 얻었고, 이를 나름대로 조합해 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곤 했으니까요."

한때 만화를 그렸고, 지금은 만화평론을 하지만 그의 전공은 문예창작이다. 대학시절 그는 시집과 만화책을 함께 꺼안고 다니는 좀 별난 학생이었는데, 만화의 매력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였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그의 유별난 만화사랑을 주변사람들에게 변명처럼 늘어놓아야 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만화평



"만화평론을 하는 동료이자 경쟁자로서 감추고 싶은 질투심을 자극했다고 할까요. 나도 이런 책 한권 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마음 들썩이게 만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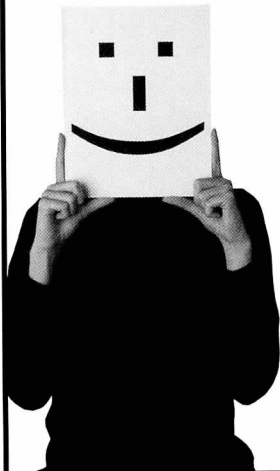
론에 눈 떴다. 그리고 1997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에 만화평론이 당선돼 본격적인 비평가의 길을 걷게 됐다. 스물다섯에 평단에 입문했지만, 가슴 한편엔 늘 시인의 꿈을 키웠다. 이 책은 그 시절 대낮의 몽상가를 깨워 치열한 평론의 세계로 이끈 길라잡이다.

"만화평론을 하는 동료이자 경쟁자로서 감추고 싶은 질투심을 자극했다고 할까요. 나도 이런 책 한권 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마음 들썩이게 만들었죠."

그는 이 책을 바탕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우리만화역사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호형호제하는 지은이 손상익씨와의 인연도 각별해 그에겐 애착이 많이 가는 책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자신의 평론집 《만화시비 탕탕탕》(초록배매직스), 《잘가라, 종이만화》는 제쳐두고, 손씨가 최근 펴낸 《한국만화인명사전》(이상, 시공사)도 곁에 두고 곱씹을 만한 책이라고 권한다. —박옥순 기자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디자인에 전념해온 디자인파트너 다음기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다음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 모집 분야

- 문화· 관광 관련 분야 기획자 (경력자 및 신입가능)
- 총무겸 맥 오피레이터

■ 자격요건

- 기획자
3~5년 이상 경력자 우대(신입가능)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문화· 관광 기획 경력자 우대
- 총무겸 맥 오피레이터
상고졸이상 여사원 / 매킨토시 사용 가능자 / PC 사용 가능자

■ 제출서류

- 1차: 이력서(사진첨부, 이력서 상단에 희망 연봉 표기)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서술)

- 2차: 면접(직접 내사) 및 포트폴리오 심사(기획자에 한하여 본인 기획물의 기획서)

■ 마감 및 접수

- 마감: 4월 30일
- 접수: 이메일 darumman@yahoo.co.kr

※면접시 자필 자기소개서 지참(서류접수 후 면접일은 추후 개별 통보)

dp design partner **darum**

다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5 K&J빌딩(2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